

본 논문은 아래의 저작권 정책을 가지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정보 (Copyright Policy)

-학술지 발행기관

• 재사용 정보 (CC License)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셀프아카이빙 정보 (Author Self-Archiving)

-Gray : 검토 중 · 비공개 · 무응답 · 기타

• 원문 접근 정보 (Reader Rights)

-이용자 접근정책 : CCL 유형에 따른 재사용 가능

-무료 DB : KCI

히스테리 변천사에 따른 도라 사례 연구

홍 성 애[†]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Sigmund Freud의 Dora 사례는 Anna O의 사례와 더불어 히스테리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정신분석학의 초기 역사가 히스테리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도라 사례가 1905년에 발표되고 120여년이 지나면서 Freud의 ‘Oedipus Complex’ 이론은 고전 정신분석의 전통이 되었고 현대 정신분석은 문화 가운데 침투하여 변화하고 다양한 이론으로 폭을 넓혀가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히스테리를 바라보는 시각의 확장을 시도한다. 먼저, 프로이트의 원문 분석을 통해 도라의 증상과 프로이트의 해석을 고찰하고, 자크 라캉의 구조주의적 정신분석 이론을 적용하여 도라의 욕망 구조와 주체 형성 과정을 분석한다. 이어서 현대 여성주의 정신분석 이론가와 여성주의 목회상담의 관점에서 도라 사례를 재조명함으로써, 히스테리 담론의 젠더적·상담학적 함의를 탐색하고자 한다.

주요어 : 도라 사례, 히스테리, 라캉, 페미니즘, 현대 정신분석, 여성주의 목회상담

[†] 교신저자: 홍성애,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학과 목회상담 전공 박사과정

E-mail: cristine64@naver.com



Copyright © 2025,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들어가는 말

히스테리의 어원은 자궁의 그리스어인 ὑστέρα (hustéra)에서 왔고, 질병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다.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BC. 460-377)는 히스테리를 성적인 문제로 접근했다. 그는 성적 만족을 얻지 못한 자궁이 온몸을 떠돌며 생긴 여성 질환으로 보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해소된다고 생각했다. 중세시대에 히스테리는 악마에 사로잡힌 마녀의 주술로 여겨져서 마녀사냥의 끔찍한 희생자가 되기도 했다. 계몽기에는 신경계나 뇌에 발생한 장애로 간주 되었다(이명호, 2004). 19세기 말에 이르러 샤르코(Jean Martin Charco)와 프로이트(Sigmund Freud)에 의해 히스테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샤르코는 최면 암시를 통해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당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는 프로이트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프로이트 이전에는 히스테리 환자는 피병 부리는 사람이거나 사기꾼이거나 혹은 신경조직의 약화로 인해 무작위적인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간주되었다. 프로이트는 히스테리 환자들이 뇌가 아닌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다는 것을 입증했다. 문제의 발단은 신경들이 아닌 생각들이었다(Mitchell & Black, 2002).

프로이트가 1886년 빈에서 의사로 개업하여 신경질환 환자를 치료할 당시에는 히스테리 환자가 만연했다. 프로이트는 1890년대에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병 원인을 심리적 측면에서 파악하여 정신분석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게 되었다. 1895년 브로이어(Josef Breuer)와 함께 ‘정신분석서의 효시’라 할 수 있는 「히스테리 연구」를 출판하였고, 다음 해인 1896년에는 정신분석이란 용어를 처음 사

용함으로써 정신분석이 탄생하게 된다(Freud 2017). 프로이트의 히스테리 이론은 초기에는 ‘심적 외상’의 충격과 억압가설로 시작되어 ‘유혹가설’로 발전되었고, 도라 사례 이후에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병인의 중심으로 두고 정신 역동적으로 설명한다(Lohmann, 2016).

1930년대 이후 히스테리에 대한 정신분석의 관심은 히스테리적인 증상 신경증에서 ‘히스테리적인 성격’ 분석으로 위치를 바꾸었다. 최근 수십 년간 히스테리는 진단 범주로서의 문헌이 되고, 국제 질병 분류 체계10(ICD-10)과 DSM-4에서 밀려났다. 그렇지만 ‘히스테리’에 관한 학제적 연구는 최근 다양하면서 끊임없이 발전된 이론적 관점을 제시하고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Micale, 1989; Seidler, 1996; Lohmann, 2016 재인용). 국내연구로는 KISS를 Database로 하여 히스테리를 키워드로 최근 10년간 연구를 검색했을 때 176편이 검색되었고 철학이나 문학, 여성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었다. 그런데 정신의학에서 히스테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히스테리가 진단범주에서 사라졌기 때문인가? 정신분석의 효시인 「히스테리 연구」가 출판된 지 1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대적 변천에 따라 히스테리 연구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는 내담자를 만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히스테리의 변천사를 알아보는 과정은 히스테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19세기 학자들은 히스테리를 학문적 논의의 대상으로 활발하게 연구했으나 히스테리를 앓고 있는 여성들의 치유에 진정한 의미에서 도움이 되지 못했다(정희성, 2011). 그 이유는 학자들 대부분이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

고히 하는 데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성 히스테리 환자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대 사회에 만연했던 어린아이나 여성에 대한 변태적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다(정희성, 2011). 도라 사례의 경우도 도라 아버지, K 씨, 프로이트 모두 도라가 꾸며 낸 공상이라고 결론 내린다. 주디스 허만(Judith Herman, 1992)에 의하면 프로이트 역시 여성이 직면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당시 사회 체제를 흔들 수 있었기에 여성 환자들의 편에서 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히스테리는 당대의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와 사회를 옹호하며 피해자가 증언한 현실을 부인했다. 당대 여성들에게 나타났던 히스테리 증상이 PTSD 증상과 유사하다고 허만은 주장한다.

도라(Dora) 사례를 통해 히스테리 증상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프로이트의 도라 사례를 라캉(Lacan)의 히스테리 구조 이론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성주의 목회상담 시각에서 재조명해본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히스테리 증상을 호소하는 내담자의 목회적 돌봄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사례 연구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프로이트의 도라 사례 보고서¹⁾

도라의 가족력

40대 후반의 도라 아버지는 성공한 대기업가로써 면모를 갖추고 있었고 도라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아버지를 따랐으나, 그의 몇 가지 행동들은 딸에게 심한 거부감을 일으켰다. 도라가 6세 때 아버지는 결핵을 앓고 있어서 공기 좋은 B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요양하기 좋은 그곳에서 가족들 모두 10년간 거주하였다. 도라가 10세 때 아버지는 망막 박리로 마비 현상과 약간의 정신장애를 수반한 현기증이 나타났다. 도라의 아버지는 혼전에 성병에 감염된 적이 있어서 프로이트의 권유로 반 매독 요법 치료를 통해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

도라가 좋아했던 고모는 중증의 정신증을 앓고 있었다. 도라 고모는 특별한 신경증 증상은 없었으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쇠약증으로 사망했다. 도라는 고모를 인생의 모델로 삼았다. 도라 큰아버지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독신자였다. 도라는 아버지의 가게에서 병약한 기질을 물려받았다.

어머니는 남편이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자신과 멀어지자 모든 관심을 집안일에 쏟았다. 자녀들의 활발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온종일 집안을 쓸고 닦았다. 그녀는 청결에 대한 강박 신경증이 있어서 더러워질까 봐 가재 도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심했다. 도라는 자신과 한 살 반 차이 나는 오빠를 어린 시절에 열렬히 따르고 좋아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소원해졌다. 오빠는 되도록 집안의 분란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았다. 누구의 편을 들 수밖에 없을 때 그는 어머니의 입장을 옹호했다.

도라의 발병과 성장기

도라는 8세 때 신경증 증세를 보였다. 산으

1) Freud, S. (2017), 「꼬마 한스와 도라」의 내용에서 발췌한 것임. 원저 「꿈과 히스테리, 1905년 출판.

로 소풍을 다녀온 후에 만성 호흡곤란에 시달렸다. 안정과 요양에 주력한 지 6개월 후에 호전되었으나, 가족 주치의는 도라의 만성 질환이 신경성 장애라는 진단과 함께 원인이 호흡기관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도라는 12세 때 편두통과 신경성 기침 증세를 보였다. 편두통은 16세에 완치되었으나, 점막의 염증으로 생긴 신경성 기침은 계속되었다. 한번 기침을 시작하면 3주에서 5주 동안 계속되었고, 몇 달 이상 가기도 했으며 목소리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 증기 요법, 전기 요법 등 다방면에 걸친 치료를 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도라는 성장기를 거의 질병과 함께 보냈고, 의사의 노력을 조롱하고 반발했으며 의사의 도움을 신뢰하지 않고 거부했다.

도라는 질병과 함께 성장기를 보냈으나 이 지적이고 호감을 주는 소녀로 성장했다. 그녀가 앓고 있는 병의 주된 증상은 짜증을 많이 내는 것과 성격의 변화였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도 좋아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는 통명스럽게 대하고, 집안일을 분담시키려는 어머니와는 전혀 화합하지 못했으며 타인과의 교류를 피하려고 했다. 도라는 만성 피로와 정신 신경증을 앓고 있었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고, 여성학에 관한 강연을 듣는 일에 열중했다. 그런데 뜻밖에 어느 날 도라의 부모는 도라 책상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부모 곁을 떠나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와의 말다툼 끝에 도라가 기억상실을 수반한 의식불명 증상을 보이자 도라는 아버지의 강요로 프로이트에게 치료를 받기로 결정된다.

도라의 히스테리

호소증상

18세 소녀 도라는 가끔 쓰러지거나 발작 빈도가 증가하는 만성적인 호흡곤란에 시달리고 있었다. 편두통, 신경성 기침, 그리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발성 장애를 경험했다.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을 보였지만 원인은 신체에 있지 않았다. 도라는 자주 우울하고 짜증을 냈다.

촉발요인 및 유지요인

도라의 히스테리 증상이 심해진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도라 가족들이 B 도시에 있을 때 성공한 사업가였던 도라 아버지와 도라는 K씨 부부와 매우 친하게 지냈다. K부인은 중병에 걸린 도라의 아버지를 돌보아 주었고 이 일을 계기로 도라 아버지는 K부인과 몇 년간 불륜을 지속했다. K부인이 도라의 아버지를 간호할 때 도라는 K씨 부부의 아이들을 보살피며 주는 등 엄마처럼 돌보는 역할을 했다. 도라는 K부인과는 같은 방을 사용하고 성생활을 포함해 민감한 이야기를 하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K씨는 도라에게 호감이 있어서, 도라와 산책을 하기도 하고 선물을 사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K씨는 도라가 16세 때 호숫가를 함께 산책하다가 도라에게 사랑을 나누자고 제안했고, 도라는 그의 뺨을 때렸다. 도라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는 K씨에게 따졌다. 그렇지만 K씨는 도라가 성적인 서적을 많이 보아서 상상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아버지는 그의 말을 믿었다.

이 일이 있기 2년 전에도 K씨는 도라 나이

14살일 때 성적인 접근을 했다. 그는 도라와 부인을 상점으로 초대하여 교회 축제를 구경 하자고 해놓고, 부인을 집에 머물도록 했을 뿐 아니라 점원도 집으로 돌려보내고 도라가 상점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혼자였다. 축제의 행렬이 다가올 시간이 되자 K씨는 덧문의 셔터를 내리고 갑자기 도라를 끌어당겨 입술에 키스했다. 그 순간에 도라는 심한 구역질을 느꼈고, 몸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황급히 달아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와 만남은 계속되었다. 도라도 K씨도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 사건 이후에 도라는 K씨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다. K씨의 키스 사건에서 프로이트는 열네 살 소녀인 도라의 행동을 완전한 히스테리 증상으로 보았다. “육체적 증상 여부에 상관없이 성적인 흥분에 불쾌감을 느끼는 모두를 히스테리 환자로 여긴다”라고 프로이트는 말한다. 도라가 느낀 감정에 대해 프로이트는 “성적 흥분감이 불쾌함으로 바뀌는” <정서 전도>와 더불어 감정의 전이가 생겨났다고 보았다. 도라의 구역질은 지속적인 증상은 아니었지만, 후유증으로 포옹했을 당시 상체에 가해진 압박을 느끼는 ‘감각 환각’을 계속 느꼈다.

프로이트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도라의 발성 장애에 대해 분석하다가 K씨의 부재 기간과 일치하는 것을 알아냈다. K부인은 질병을 통해 남편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했던 반면에 도라는 질병을 통해 그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고 프로이트는 분석한다. 실제로 도라는 K가 부재 시에는 병이 나고 그가 돌아오면 건강해진다. “히스테리의 증상이 정신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육체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만약, 정신적 원인에 의한 것이면 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건 지어진 것인지 그 답을 찾아

내기 어렵다”라고 프로이트는 말한다.

“실제 원인은 양자택일적이지 않고, 모든 히스테리 증상은 양쪽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정상적 또는 질병에 의한 상태의 진행이 신체기관에 작용해서 생긴 ‘신체적 승낙’이 없으면 히스테리 증상은 일어날 수 없다. 정신적 차원에서 의미를 갖지 않을 때 히스테리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때문에 증상에 관한 정신적 의미를 밝혀냄으로써 증상을 해소시킬 수 있고 정신분석을 통해 신체기관과 관련된 근거에 관해 제대로 생각할 수 있다(Freud, 2017)”.

히스테리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프로이트는 비인에서 브로이어와 함께 신경증 환자들의 히스테리 증상을 치료하고 연구했다. 베르타 파펜하임(Bertha Pappenheim)이라는 젊은 여성을 치료했는데 환자가 자유롭게 말하도록 두는 talking therapy를 통해 증상이 최초로 나타났던 불쾌한 사건에 대한 기억을 말함으로써 오래된 감정이 방출되어 히스테리에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 하지만 브로이어와 프로이트는 히스테리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 브로이어는 히스테리 환자를 의식 변화에 민감한 사람들로 보았으나, 프로이트는 성적인 억압으로 보았고 갈등과 비밀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았다(Mitchel & Black, 2002).

프로이트는 「꿈과 히스테리」라는 논문을 통해 히스테리 환자의 성도착증, 성감대, 양성에 성향 등을 이론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증상들의 기질적 토대와 연관 지어 다루었다(Freud, 2017). 프로이트는 히스테리가 정신적 외상,

정서적 갈등, 어린 시절 겪은 성적 충격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린 시절의 성적 외상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상상이나 환상인 경우에도 히스테리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아이를 유혹하는 부모가 아니라 부모를 욕망하는 아이를 판타지(phantasy)²⁾ 개념으로 설명한다. 프로이트는 도라의 히스테리가 오이디푸스 갈등에서 유래하는 성적 갈등이 억압되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신체적 증상으로 전환된 것으로 해석한다.

프로이트는 유전이 히스테리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과소평가하지도 않는다. 히스테리 증상에는 육체적 원인과 정신적 원인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보았다. 히스테리의 증상은 억압된 무의식에서 비롯된 질병이 신체기관에 작용해서 생긴 ‘신체적 승낙’이라 말한다. 무엇이 히스테리 환자에게 억압이 되어 ‘신체적 승낙’을 통해 몸으로 반응하는가? 그것은 욕망 그 자체이다. 히스테리 환자는 욕망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Freud, 2017). 프로이트에 의하면 도라의 호흡곤란과 천식은 K씨의 포옹으로 인해 하체에 자극된 성적 흥분이 상체로 전치되어 나오는 신체적 작용인 것이다. 프로이트와 K씨는 엄청난 애연가였다. 도라의 꿈 분석을 하면서 그녀의 꿈에 나오는 연기는 K씨를 상징한다고 프로이트는 해석했다. 연상작용에 의해 담배 연기가 기침을 유발한다. 도라에게 프로이트의 담배 연기는 K씨를 상기시킨다. 도라와 K씨의 관계가 분석가인 프로이트에게 전이된 것으로 보았다.

2) 정신분석 전문용어로 설명할 때는 fantasy가 아닌 phantasy로 쓴다.

프로이트가 놓친 것

도라의 아버지는 도라의 상태가 염려되어 프로이트에게 치료를 맡겼지만, 자신과 K씨 부인과의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도라를 설득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똑똑한 도라는 아버지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Freud에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다. 프로이트는 도라의 말이 맞다고 인정은 하지만 도라의 아버지에 대한 질책이 도라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프로이트는 도라의 꿈을 통해 히스테리를 분석했는데, 무의식적 욕망의 표현으로서 히스테리는 꿈과 마찬가지로 욕망이 끊임없이 치환된다. 도라의 욕망은 K씨인데, K씨는 사실 도라의 아버지, 프로이트로 치환될 수 있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해석이었다. 프로이트의 분석은 도라에게 강력한 저항을 일으키고 다음회기에 도라는 분석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한다. 도라는 프로이트에게 “지금까지 알아낸 것이 고작 그게 다인가요?”라고 항변한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보다는 도라의 아버지와 K씨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이는 프로이트의 모습에서 도라는 강한 전이 감정을 느꼈던 것이다.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의하면 도라가 K부인과의 관계에서 아버지를 빼앗아간 K부인을 질투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도라가 욕망한 것은 K부인 이었음을 간과했다고 프로이트는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

라캉(Jacques Lacan)은 프로이트가 도라의 전이를 분석하면서도 자신의 역전이를 파악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Lacan, 2019). 라캉에 의하면 프로이트는 K씨에게 오랜 호감이 있었다. 프로이트에게 도라의 아버지를 소개한 사람이 K씨였고 프로이트는 자신 글에서도 K씨에 대한

찬사를 표현했다. 프로이트는 분석 과정에서 자신을 K씨 위치에 동일시하였다. 그러나 도라가 제시한 다양한 반박의 대답을 프로이트는 매번 고백의 의미로 해석했다. 라캉은 이러한 해석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프로이트가 도라의 언어를 주체성을 지닌 발화자로 존중하기보다 자신의 이론적 전제와 욕망에 맞추었다고 비판했다. 라캉은 역전이를 “변증법적 과정의 어떤 순간에든 분석가의 편견, 열정, 부적절한 정보의 총합”으로 정의한다(Lacan, 2019). 라캉은 히스테리를 히스테리 환자 주체로서의 입장으로 바라본다. 도라에 대한 라캉의 관심은 도라의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에 주목한다.

Lacan의 도라 사례 분석

라캉의 히스테리 이론

라캉은 「세미나 4」에서 대상 관계와 프로이트의 구조를 다루면서 정신분석 기술을 구조로 다룬다. 프로이트의 논의를 도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도식은 주체와 타자의 관계, 분석가와 분석 대상의 관계를 상상적 관계, 상징적 관계 등으로 설명한다. 처음에는 상상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이어서 상징적인 관계가 된다. 이렇게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말의 근본적인 행렬 때문이다. 처음에는 주체가 자신을 닮은 이미지의 상상적 관계에 근거해 대상을 이해하지만, 나중에는 자신과 상관없는 대타자와 관계하게 된다. 여기서 대타자는 기표의 덩어리이다. 대타자는 주체와 더불어 움직이고 주체를 속이기 위해 대상을 만든다. 주체와 대상 간에 전이가 발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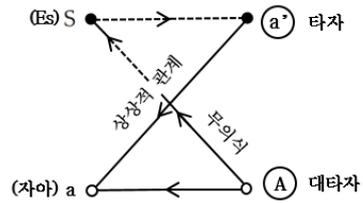


그림 1. L 도식 (Lacan, 2019)

는데, 라캉은 이것을 상호주체성의 변증법이라고 부르며 L 도식을 이용해 설명했다. L 도식은 라캉이 설명하는 인간 정신의 세차원을 설명하는 틀이다. 세 차원은 상상적 질서, 상징적 질서, 그리고 환상적 질서이다. 주체의 탄생은 아이가 말을 배우면서 자기와 닮은 것과 상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된다. 소문자 a로 표기되는 자아는 소타자 a'로 표시되는 이상적 자아와 관계하며, 이는 주체가 자기 동일성을 확보하는 상상계적 과정에 속한다. 반면, 주체를 의미하는 S는 언어의 장(場), 즉, 말과 상징적 체계인 대문자 A로 표시되는 대타자(A)로부터 영향받는다. 주체 S는 환상화된 대상인 a와 상호적인 관계를 맺는다. 현실에서 인식하는 의식적 자아는 상상적 대상과 관계하며, 무의식적 주체는 대타자와 환상화된 대상 모두와 관계한다(강웅섭, 2015).

라캉은 유아가 어머니와 함께 있던 최초의 상태를 평화롭고 충만한 낙원 같은 곳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유아가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머니와의 분리는 인간의 마음 안의 근본적인 분열과 괴리를 반영한다. 이 근원적 괴리로 인해 성적 충동이나 단순한 욕구 충족 이상을 의미하는 욕망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욕망은 근본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것이다. 과거에 경험했던 어머니와 일체감을 그리워하고 어머니와 융합하려는 불가능한 갈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Lacan, 1977).

아이의 최초 갈망은 어머니의 남근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남근은 문자 그대로 남성의 생물학적 기관인 ‘penis가’ 아니라 ‘phallus’라는 단어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라캉에게 남근(phallus)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기표로서 누구나 갈망하지만 어느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충만함과 완전함을 함축하는 위치를 재현하는 것이다. 아이는 어머니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어머니의 모든 것이 되고자 갈망하지만, 아버지에 의해 방해받는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갈망의 대상인 남근을 갖고 있고 아이와 어머니의 교제를 통제한다. 아이는 어머니의 남근이 될 수 없으며 거세된다. 라캉에게 ‘욕망’이란 영원히 충족될 수 없는 일종의 실존적 회복을 소망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Lacan, 1977). 거세는 페니스의 유무와 상관없이 양성 모두에게 관계되는 근원적인 상태이다. 아이는 자신이 사회에 받아들여 지기 위해 자신의 은밀한 욕망을 반납하고 아버지의 법을 받아들인다. 사회는 대타자로 아버지의 법의 역할을 한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사실은 진정한 내가 아닌 타자의 것이다. 특별히 아버지의 것, 문화의 것이다.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라캉은 히스테리를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간주하는데, 다른 하나는 바로 강박 신경증이다. 라캉은 신경증의 구조가 질문의 구조라는 생각을 발전시킨다. “강박 신경증이 주체의 존재에 관한 질문과 연관이 있다면, 히스테리는 주체의 성적인 문제에 관한 질문과 관련 있다”라는 것이다. 그는 “여성이란 무엇인가?” 묻는 여성의 정체체성과 주체성에 관심 갖는다(Lacan, 2019). 라캉은 프로이트가 히스테리 연구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긴 이성애와 동성애 문제를 탐색하면서 도라가 K부인과 관계에서 여성성을 찾으려

는 딜레마를 탐색한다.

라캉의 도라 사례 분석

라캉은 프로이트와 도라 사례를 분석하면서 대타자의 욕망으로서의 욕망의 구조는 다른 어떤 임상 구조보다 히스테리에서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라캉은 “히스테리 환자는 자신을 타인과 동일시함으로써 타인의 욕망을 도용하는 주체”라고 보았다. “히스테리 환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을 욕망하는 주체로 유지하는 것”이다(강웅섭, 2015). 도라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K부인이 아버지에게 욕망의 대상이듯이 도라도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대상이 되고 싶어 한다. 도라 자신이 K부인의 자리에 있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환상 속에서이다. 라캉이 주목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K부인은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환상화된 대상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K부인의 위치에 가게 됨으로써 동성애적 대상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고 도라가 K부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상징적 교환에서 양도되는 것은 언제나 현존하면서도 부재한 것이다. 팔루스는 상징적 대상으로 남 녀간의 모든 관계 저 편에 늘 존재한다. 도라와 K부인과의 관계에서 도라가 겨냥하는 곳은 여인에게서 부재한 대상, 바로 팔루스기 자리하는 곳이다(강웅섭, 2015).

라캉은 정신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심리가 아니라 주체 간 관계이며 변증법적 경험이라고 주장한다(Lacan, 2019). 라캉은 “도라 사례는 프로이트에 의해 일련의 변증법적 반전의 형태로 전개되었다(Lacan, 2019)”는 것을 발견한다. 변증법적 역전에 의한 세 가지 진

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분노에서 공모로의 반전이다. 도라는 아버지가 K부인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자신을 K씨에게 교환의 대상으로 내주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그러나 도라 자신도 K씨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K부인의 관계를 묵인함으로써 공모했음을 지적한다. 분노하는 도라에게 “당신이 불평하는 그 상황에 당신도 개입된 것을 보라”는 프로이트의 말을 인용하여 변증법적 역전이라고 라캉은 말한다(Lacan, 2019).

두 번째 진실은 질투에서 관심으로 반전된다. 도라가 아버지와 K부인과의 관계에 침묵함으로써 아버지와 K부인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K부인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배후에는 도라와 아버지의 동일시가 있다. 프로이트의 분석대로 도라가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이 사실 자신을 향한 자기 비난이라면 라캉이 지적한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도라의 오이디푸스적 사랑은 아버지와 동일시에 기초한다. 라캉은 도라가 왜 갑자기 아버지의 밑에 질투심을 느꼈는지 의문을 갖는데 여기에도 변증법적인 역전이 있다. 왜냐하면 질투의 대상이 그녀의 진실된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주체에 대한 관심을 은폐하고 있다고 Freud가 설명하기 때문이다(Lacan, 2019). 아버지의 밑에 대한 도라의 질투심에서 경쟁주체는 K부인이다. 도라 역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다.

세 번째 진실은 개인에서 신비로 반전된다. 도라가 K부인에게 성적으로 매료되어 있다는 것이다. 라캉은 도라를 매료시킨 K부인의 “감탄할만한 하얀 몸”을 프로이트의 글에서 인용한다. K부인은 도라에게 참된 가치를 드러낸다. 그것은 한 개인이 아닌 도라 자신의 여성

성의 신비를 나타내는 데 있다(Lacan, 2019). 도라에게 K부인은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으로 도라 자신을 넘어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라는 그녀에게 매료된다. 도라가 아버지와 K부인, K씨, 그리고 도라 자신의 4자 관계를 용인할 수 있는 것은 K씨에게는 도라가 K부인을 넘어선 존재이기 때문이다(Rabaté, 2005).

호숫가 장면의 사건은 도라가 남성 욕망의 대상으로 환원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K씨는 호숫가에서 도라에게 “내 아내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함으로써 도라가 동일시하는 K부인에 대한 도라의 환상을 건드렸다. 도라는 K씨에게 화를 내고 그의 뺨을 때림으로서, 남성의 욕망의 대상으로 환원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한다. K부인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당신은 내게 뭐지요? 라는 함의를 지닌다(Lacan, 2019).

히스테리 환자는 대타자의 욕망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으려고 한다. 도라가 K부인을 욕망하기 위해서는 K부인을 욕망하는 남성 K씨와의 동일시가 필요하다. 도라는 아버지와 K씨와 동일시하며 K부인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통해 여성성에 접근하려 했다. 라캉은 결론적으로 도라가 대타자인 아버지와 K씨, 그리고 프로이트에게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해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양석원, 2019).

라캉과 페미니즘

라캉은 정신분석과 페미니즘 관계에 있어서 역설적인 역할을 했다. 라캉의 남근 개념이 문자 그대로 페니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기표를 상징하고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고전적인 프로이트 학파의 남성

우월적 인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방식의 라캉 읽기는 정신분석학적 개념들을 해부학적 운명에서 해방시켜 성을 순수하게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용어로 이해하게 했다고 보는 시각이다. 줄리엣 미첼(Juliet Mitchell)은 언어 안에서 의미를 생성하는 상징들의 엄청난 과급성에 대한 라캉의 해석은 페미니즘 관점으로 서구 문화를 비평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초를 제공해준다고 주장했다. 몇몇 페미니스트들은 라캉의 언어와 상징적 언어 분석에 근거하여 글을 쓴다. 줄리엣 미첼은 가부장제도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라캉의 한계에 머물고 있는가 하면,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와 루스 이리그레이(Luce Irigaray) 등은 라캉의 분석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여성적인 형태의 경험들과 의미들을 창출하려는 작업을 시도한다(Mitchell & Black, 2002).

히스테리와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들에게 도라 사례는 남성 분석가가 여성 히스테리 환자의 욕망을 이해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가부장제 아래에서 목소리가 없는 여성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가 히스테리이다. 페미니스트들이 문제 삼은 것은 남근 이성 중심 상징체계 안에서 감정과 몸으로 등치된 여성은 침묵하거나 광기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실어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페미니즘은 역사적으로 여성을 히스테리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타자화했는지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여성의 욕망과 언어를 여성의 관점에서 재현하려는 시도는 페미니즘의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페미니즘은 히스테리에 주목하게 되었다(임옥

희, 2003).

프로이트는 도라 사례를 소개할 때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놓쳤다고 각주에 달았다. 히스테리를 무의식적 동성애적인 성향으로 설명했다. 나는 남자인가, 여자 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함으로써 성적 정체성에 혼란이 초래되며, 이로 인해 히스테리 환자들은 자신을 남성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위한 적절한 기표의 부재로 인해 히스테리아들은 자신을 기존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히스테리 환자들은 “여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남자가 아닌 제3항을 찾으려고 한다. 기존의 상징질서가 아니 방식으로 또 다른 여자인 제3의 여자를 찾으려고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교환되는 것은 여자들 사이에서 남자가 된다. 도라는 K씨 부인과 공모하여 아버지를 교환하거나 K씨를 교환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식수는 히스테리를 혁명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히스테리는 여성을 교환하는 사회에서 여성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남성을 교환하려는 욕망을 위장,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임옥희, 2003)

엘렌 식수(Helene Cixous)는 「도라의 초상」이란 제목으로 프로이트의 도라 사례를 여성주의 정신분석으로 비판하고 ‘여성적 글쓰기’로 재해석했다. ‘여성적 글쓰기’에서는 정신분석의 남성 중심의 담론 구조를 해체하고, 여성을 해석의 대상이 아닌, 말하는 주체로 복원한다. 엘렌 식수는 도라의 치료 중단을 프로이트의 해석에 대한 권력을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으로 본다. “도라는 그들의 방식으로 말하기를 거부했다.” 도라의 언어는 남성의 해석 체계로는 번역되지 않는 타자의 언어, 곧 여성의 언어이다.

식수는 여성 억압의 근저에 성에 대한 억압이 있다고 보고 남성에 의해 억압된 여성의 몸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여성적 글쓰기’는 여성의 성적 특징을 발견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는 남성적 중심의 이성적, 논리적 글쓰기 방식과는 다른 차원이다. 여성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글쓰기이므로 여성의 성적 특징을 잘 드러내 준다. 여성이 자기 몸의 소리를 글로 쓸 때 자신을 회복한다고 식수는 말한다. 전통적 정신분석에 의하면 여성의 신체는 남근이 결여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식수에 의하면 글쓰기에 관한 한 여성의 육체는 우월하다. 전 육체가 남근에 종속되어있는 남성과는 달리 여성들은 말단이나 중심 부분들이 없는 끝없는 육체를 가졌으므로 우주적 리비도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새로 태어난 여성」에서 식수와 카트린 클레망(Catherine Clement)은 도라가 “내 아내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아버지와 K씨의 발언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은 도라 사례의 핵심은 “도라가 하녀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고³⁾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어머니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점”이라고 한다. 식수는 도라를 “여성들이 가진 저항의 힘을 보여주는 중심적인 예”로 묘사한다. 식수는 도라가 부르조아 가족의 위선을 폭로하고 그 구조를 파괴하는 혁명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클레망은 도라의 저항이 개인적인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글쓰기와 같은 행위를 통해 상징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만큼, 사회주도의 변화에는 제한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

3) K씨는 하녀에게도 “내 아내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며 성적인 접근을 했었는데, 도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었다는 것이다(Cixous & Clement, 2008).

도라를 다시 만난다면

청소년기 신경증

Jean David Nasio(2011)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신경증을 히스테리로 본다. 그는 청소년기를 건전한 성장 히스테리 기간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히스테리 청소년의 자아상태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불안한 자아, 두 번째는 엄격한 초자아에 의해 자신을 지나치게 꺾어주는 우울한 자아, 세 번째는 예민하고 쉽게 짜증내고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청소년 자아 상태이다. Nasio는 “히스테리는 늘 사랑의 문제”라고 한다. “불안 히스테리 환자는 사랑하기를 두려워 하고, 우울 히스테리 환자는 잃어버린 자기 사랑을 아쉬워 하고, 편집증적 히스테리 환자는 예민하고 반항적이며 더 많은 사랑을 갈구한다”라고 Nasio는 말한다. Nasio의 이론에 비추어 도라의 사례를 적용하면 불안, 우울, 반항 모두 해당되는 청소년기 히스테리라고 생각된다. Freud도 도라의 증상만을 놓고 보았을 때 ‘가벼운 히스테리’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Freud가 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라가 앓고 있는 병의 주된 특징은 짜증을 많이 내는 증세와 성격의 변화였다. 그녀는 자기 자신은 물론 부모도 좋아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는 통명스럽게 대했고, 집안일을 분담시키려는 어머니와는 전혀 화합하지 못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려고 했다. 늘 따라다니는 피곤함과 정신의 산만함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그녀는 여성학에 관한 강연을 듣는 일에 열중

했고 스스로 공부했다(Freud, 2017)”.

Nasio(2011)는 「위기의 청소년」에서 “소녀와 소년의 중요한 차이점은 사춘기에 뚜렷이 나타나는데, 사춘기 소녀는 신경증적인 특이성이 없는 일시적인 성에 대한 혐오가 뚜렷한 반면, 사춘기 소년은 리비도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Freud의 주장을 근거로 사춘기 소녀들에게 나타나는 성에 대한 혐오를 설명한다. 전형적인 히스테리성 장애라 할 수 있는 소녀들에게 나타나는 성에 대한 혐오는 청소년기의 너무도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여기고, 건강한 청소년 히스테리의 발현이라 부른다. Freud는 또한 사춘기 소녀의 지나친 수줍음에 대해 “아동기 이래로 지배적이었던 클리토리스 쾌락에 대한 급작스러운 억압”으로 바라본다. Nasio는 수줍음, 불감증, 성에 대한 혐오, 정신의 경직성 등, 두려움에 떠는 소녀에게 나타나는 히스테리 행동들은 클리토리스 성적 쾌락에 대한 지나친 초자아의 억압 결과라고 보았다.

Nasio가 말하는 청소년기는 성적 환상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사춘기 소녀들에게 나타나는 성에 대한 혐오와 수줍음도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근거를 Freud(1926)의 도라 사례가 아닌 다른 논문 「Hemmung, Symptom und Angst」을 통해 밝히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도라의 성적인 환상과 성에 대한 혐오를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청소년기의 성은 성적 정체성(identity)이나 성적 지향(orientation)이 형성 중인 과정에 있는 시기이다. 당시 18세인 도라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다는 라캉의 해석이나 페미니스트의 주장처럼 도라와 K부인과의 관계를 동성애로 보는 시각은 청소년기의 특징을 간과하고 성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것 같다.

가족체계와 히스테리

Christopher Bollas는 「Hysteria」에서 “가족을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가족의 관습과 규칙에 의해 지배받는 작은 세계”로 묘사하며 성숙이란 단순히 개인의 발달이 아닌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으로 바라본다. 그 기간에 유아는 일반적인 관습을 학습한다. 일련의 것들이 내면화되어 내적 대상을 만들고, 내적 대상들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원형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가족은 가족 규칙과 관습에 의해 지배받는 복잡한 체계이다. 동일시를 통해서 습득된 히스테리 증상은 그 이후에 일생동안 주기적으로 지속이 된다. 볼라스는 히스테리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계보학이라 부른다. 문장수와 심재호(2014) 연구에서도 도라의 히스테리 증세를 부모로부터 분리 개별화의 과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신체를 통해 지속적인 갈등을 재현하는 청소년기의 히스테리 증상으로 본다.

도라는 8세에 호흡곤란이라는 신경증을 앓았고, 6개월간의 요양을 통해 호흡곤란은 진정 되었으나, 12세에 편두통과 만성기침에 시달리며 성장기를 질병과 함께 보냈다. 도라의 가족관계에서 도라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소원한 관계이다. 도라의 아버지와 도라 사이는 가깝다. 성공한 사업가인 아버지는 유능하고 힘이 많은 존재이지만 엄마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다. 도라는 유아 시절부터 어머니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라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화합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쏟아주기를 바라는데, 어머니는 아버지와

관계를 포기하고 집안일에만 몰두하는 무심한 엄마이기에 불만이 많다. 도라가 어머니와 동일시하는 부분은 아버지로부터 감염된 성병의 치료를 위해 엄마와 온천을 다녀온 경험이다. 이 사건은 아버지로 인해 엄마와 도라가 함께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을 드러냄으로써, 도라의 동일시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가족 체계의 갈등 구조 속에서 히스테리라는 신체 증상으로 표현되었음을 시사한다.

아버지도 여러 차례 병을 앓음으로써 가족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아버지의 간호를 어머니가 맡지 않았고 도라가 떠맡았다. 도라의 아버지는 도라를 어릴 때부터 자기의 연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로 생각했다. 도라는 아버지의 건강에 관심을 가졌고, 아버지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특별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버지를 동일시 대상으로 삼았을 수 있다. 도라의 만성적인 기침은 아버지의 폐결핵과 동일시되는 증상으로 볼 수 있다. 도라 아버지의 간호를 K씨 부인이 맡게 되면서 도라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밀려나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원망이라는 양가감정을 갖게 된다.

16세에 K씨로부터 받은 구애는 도라에게 충격이었다. 도라는 아버지가 K씨 부부와의 관계를 끊고 자신을 보호해주기를 바랐지만, 도라 아버지는 도라의 말을 믿지 않았고, 도라가 성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서 공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K씨의 말을 믿었다. 도라와 같은 방을 쓰고 성적인 지식을 공유했던 출처가 바로 K부인이었다. 도라는 K씨, K씨 부인, 도라 아버지 모두에게 배신을 당했다. 도라의 스트레스는 히스테리라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다.

도라는 프로이트에게 도라 아버지가 자주 질병을 가장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주장했다. 도라는 아버지가 비엔나에 있었을 때 기침을 해서 힘들다고 불평을 하다가 냉습한 기후를 핑계로 갑자기 B라는 곳으로 요양을 떠난 직후에 K씨 부인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도라 아버지의 병적 증세들은 단지 K씨 부인을 다시 만나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 도라는 자신의 아버지와 K씨 부인을 지켜보면서 질병이 얼마나 유용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K씨는 매년 일정 기간 혼자서 여행을 떠났다. K씨 부인은 K씨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주 건강하다가도 K씨가 여행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갑자기 아팠다. 도라가 보기에 K씨는 자기의 아내를 병약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도라는 K씨 부인이 평상시에 너무나 건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Freud, 2017).

도라는 아버지와 K씨 부인 간의 관계에 대해 분노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도라 아버지와 K씨 부인에 대한 도라의 비난들은 사실은 도라의 자신을 향한 ‘가면을 쓴 자기 책망’이라고 분석했다. “도라에게 그녀의 현재의 병은 그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K씨 부인의 병만큼이나 심각했으며, 그것은 피병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프로이트는 말한다. 프로이트는 K씨 부인이 자신의 질병을 강력한 무기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K씨 부인도 히스테리 환자라고 하는 도라의 지적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는 도라의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도라 자신의 문제로 바라봄으로써 도라의 행동과 그녀 주변 사람들의 행동 사이의 유사성을 놓친다. 프로이트 자신도 히스테리 환자의 가족 환경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했다. 정신 신체화 증상이 나타날 때 환자의 증상으로 인해 가족 중 누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는 ‘도라의 경우에는 그녀의 아버지의 명민함 때문에 그 환자의 삶의 환경과 그녀의 병 사이의 상관성에 대하여 더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변명한다(Freud, 2017).

여성주의 목회 상담적 성찰

19세기 히스테리를 연구한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질환이었다. 19세기 부르주아 계층의 여성을 둘러싸고 있던 사회적 기대에 의한 저항, 수동적 형태의 저항이 히스테리라는 것이다 (Thurschwell, 2000). 당시 여성들에게 기대되었던 성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라의 히스테리 증상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로라 브라운(Laura Brown)은 여성주의에 대한 인식 없이는 트라우마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여성주의는 여성으로서의 인간의 경험에 질문하며 출발한다. 가부장제를 잇는 순간 가부장제에서 기대되는 여성의 역할에 익숙해지기 때문이다(Brown, 2023).

여성주의 상담에서는 젠더(gender)와 사회를 보는 여성주의적 관점이 중요하다.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가부장적 관점에서 여성 내담자를 보는 상담자를 만나면 내담자는 현실의 관계뿐만 아니라 상담 관계에서도 차별과 억압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김민예숙 & 강문순, 2004).

젠더(Gender) 역할 분석

도라 아버지는 도라가 순종적인 딸이기를 바랐고, 어머니는 도라가 가사 역할을 분담해

주길 바랐다. K 부인은 자신의 아이들을 도라가 돌보게 했다. K씨는 도라를 자신의 욕망을 위한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동적이고 마조히즘적이다. 프로이트는 「성욕에 관한 세편의 에세이」에서 리비도는 남성적인 성질을 띤다고 주장한다. 프로이트(1996)에 의하면 ‘성폭력이나 성적 대면에서 적극적이고 즐거움으로 반응하면 강박 장애로 나타나고, 주로 이는 남자에게서 나타난다. 반면 수동적이고 구역질 불쾌로 반응하면 히스테리로 나타난다’. 여성에게 히스테리가 흔한 이유는 여성이 성행위에서 수동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프로이트는 처음에는 성과 육체와의 관련성을 부인했으나 다시 성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히스테리를 여성의 병으로 규정하였다. 결국, 자궁과 히스테리를 성과 연결하여 여성의 병으로 보았던 프로이트 이전 시절의 이해로 돌아간 것이다(정희성, 2011). 프로이트와 달리 브로이어는 히스테리 연구를 통해 여성이 성적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 한 걸음 더 나갔다. 브로이어는 여성이 가정 속에서 경험하는 성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현실로 받아들였다. 히스테리 환자에게 결혼생활은 에로틱한 유혹이 아니라 남성의 변태적인 요구와 폭력으로 가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성적 외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브로이어는 히스테리의 본질에는 여성의 성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확인하였다. 프로이트는 여성의 성은 남성성의 부재로 이해하고 성적 외상을 입은 여성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병으로서의 히스테리에만 관심하였다(Braun, 2003).

권력 분석

여성주의 상담에서는 젠더 역할과 권력

분석을 통해 사회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분석한다.

프로이트와 권력 구조의 교차성.

프로이트는 반유대주의 사회의 피억압자이자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부장적 권력을 옹호하는 이중적 맥락에 놓여있다. 프로이트는 원래 이름이 슬로모(Shlomo)였으나 반유대주의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식민지화된 유대인으로 살아야 했던 프로이트의 존재적 동화주의적 방식이 심리치료가 나아가는 방향을 감염시켰다고 로라 브라운(2023)은 주장한다. 식민지화는 특정 형태의 가부장제를 가져옴으로써 성 평등이나 모계 사회의 토착 관행을 말살시켰다. 로라 브라운은 심리학의 발전을 위해 심리치료의 탈식민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프로이트와 도라 사이의 권력 관계 분석.

프로이트는 K씨를 통해 도라 아버지를 소개받았다. 도라 아버지가 매독에 걸렸을 때 반 매독 요법으로 치료해주었다. 도라 아버지는 도라가 의식을 잃고 발작증세를 보이자 프로이트에게 치료를 맡긴다. 도라 아버지는 자신과 K씨 부인과는 순수한 친구 관계이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는데 도라가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도라를 설득해 달라고 부탁한다. 도라가 자발적으로 치료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도라의 치료비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프로이트는 도라를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다. 프로이트는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이중 관계에 놓여있다. 도라와의 관계에서 프로이트는 분석가의 권위로 내담자인 도라보다 권력의 우위에 놓여있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도라를 통해 히스테리를 증상을 알아내고자 하는 연구자의 입장일 때는 도라가 프로이트보다 우위에 있다. 도라는 분석가의 권력과 횡포에 휘둘리지 않았다. 도라를 비롯하여 안나 O, 히스테리 환자의 대부분은 페미니스트였다는 사실은 남성 중심 해석의 한계를 보여준다. 여성의 경험을 중요하게 다루는 여성주의 목회상담 관점에서 도라 사례를 재고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도라의 가장 깊은 분노는 K씨의 유혹에 대해 아버지가 도라의 말을 믿어주지 않은 것이다. 주디스 허먼이 지적했듯이 당시에 만연했던 성폭력에 대한 침묵에 도라가 분노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행동 중에서 호숫가에서의 사건을 공상의 산물로 여기려는 태도만큼 그녀를 절망에 빠뜨린 적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당시에 이야기를 꾸며냈다는 아버지의 말을 생각하면 미칠 지경이었다 (Freud, 2017)”.

지배 담론의 해체

도라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도라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K씨 부인과의 관계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 도라에게 접근하는 K씨의 행동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도라가 잘못된 공상을 한다면서 떠넘기는 행동을 함으로써 도라의 탓으로 돌리는 주변인들의 말을 믿는다. 도라는 K씨가 아버지와 K 부인 사이의 관계를 용인하는 대가로 자신이 K씨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야 하는 상황에 분개했다. 프로이트도 도라의 이야기를 믿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을 하자 돌연 치료를 중단했다. 도라의 분석 중단은 프로이트로 하여금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은 하녀로 취급

받은 것처럼 느껴졌다. 자존심 상한 프로이트는 복수라도 하듯 자신의 여동생의 유모 이름을 따서 도라⁴⁾라는 가명을 썼다고 알려져 있다. Rabaté(2005)는 프로이트가 Ida Bauer의 가명으로 Dora를 사용한 것에 대해 프로이트의 천재성을 발견했다. Rabaté는 Freud가 자신의 환자를 “선물들”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로 바꾸면서 δερων(Deron)의 복수형인 Dora가 “선물, 수수료 또는 뇌물”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리스어에서 복수형의 의미는 뇌물을 받는 사람에 대한 비난을 암시한다. 그러나 선물을 돌려줄 의무가 포함된 경우 어떤 선물이 뇌물이 되지 않을까? 라캉의 이론에 따르면 도라가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다른 유형의 ‘아무것도’가 그녀에게 제시되어 상징적 사슬을 따라 다른 남근 대체물을 포기하도록 강요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단지 ‘대상’의 위치를 점유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환의 형태로 주어진 ‘뇌물의 기능’을 거절한 도라에 대해 감탄을 자아낸다”(Rabaté, 2005). 프로이트는 도라가 교환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외면했다. 치료를 중단한 도라의 행동은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분석가의 해석을 해체한 용기 있고 힘 있는 행동이었다.

도라 이름의 그리스어 뜻이 부정적인 의미의 선물을 의미한다는 것은 도라 사례의 시대적 맥락을 반영한다. 여성의 존재를 뇌물이나 교환물 취급하는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여전히 재생산하는 빅토리아 시대상을 보여준다. 여성을 교환물로 취급하는 폭력적인 문화는 프로이트의 「토텐과 터부」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같은 토텐의 상징을 사용하는 부족들은 서로 결혼할 수 없었다. 부족들은 근친상간을 엄격하게 금했고 다른 부족에게서 배우자를 데려와야 했다. 족외혼을 유지하기 위해 부족과 부족 간에 여성을 화폐처럼 교환했던 것이다. 도라의 아버지, K씨, 프로이트는 도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도라의 어머니, 가정 교사, K씨 부인 여성들이었으나 도라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도라가 여성학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방법이었을 수 있다.

도라가 치료를 포기함으로써 K씨에 대한 적대감을 실연했다는 것을 프로이트는 뒤늦게 깨달았다. 프로이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치료의 실패는 오히려 남성 중심의 지배 담론을 해체하는 도라의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분석가와 내담자라는 불균형한 힘의 균형을 깨뜨림으로써 도라 스스로 임파워링(empowering) 하는 모습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여성주의 상담의 중요한 과정이다.

연구의 의의와 논의

본 연구에서는 히스테리와 정신분석의 역사를 도라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적용해 보았다. 한 이론을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다양한 이론을 통해 히스테리 연구의 흐름을 살펴 보았다. 도라 사례는 청소년기의 성장 신경증(Nasio, 2011)의 양상을 통해 도라의 성 정체성을 탐색해볼 수 있으며 가족 체계론적 관점에서는 부부의 문제가 자녀를 통해 드러나는 ‘희생양’으로 도라 사례를 바라볼 수 있고 페미니즘의 입장(김애령, 2018; 태혜숙, 1998)에서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

4) 도라의 본명은 Ida Bauer

는 소녀의 이야기이다. 여성주의 목회상담 관점에서 바라볼 때 도라의 히스테리는 여성을 대상화하고 억압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당당하게 맞서는 주체성을 지닌 한 인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히스테리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된다(권석만, 2013). 시대와 문화가 바뀔 때 따라 히스테리가 ‘여성의 피병’이라는 오명을 씻고 진단 범주에서 사라졌으나, 도라와 같은 증상을 가진 내담자가 상담실에 찾아온다면 이 중 어떤 이론이 도움이 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진단하기 보다는 진단하지 않기가 더 중요하다. 증상에 대한 감정 반응에 공감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무의식적 갈등과 불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영성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정희성(2011)에 의하면 “히스테리 치유를 위한 목회상담의 하나의 방법은 히스테리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잘 경청하고 표현해 성숙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분노와 공격성이 억압되어있는 경우에 적절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갈 수 있다”라고 제안한다.

히스테리는 히스테리를 연구하는 학자마다 증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왔다. 오오현·안석(2011)은 히스테리를 크게 2개의 매커니즘으로 나누는데 신경증으로서 히스테리와 연극성 성격장애로서의 히스테리이다. DSM-4에서는 ‘신체화 장애’라는 명칭으로(김미리혜, 2013) 분류되었다. 신체화 장애는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한다. 소화기 계통 증상, 성적 증상, 그리고 신경과 증상과 유사한 증상들이 합쳐진 복합 증세들이 30세 이전에 시작된다. 이만홍과 동료들(1986)은 DSM-3 진단기준에 한국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들을 추가

하여 ‘한국형 신체화 장애’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한 적이 있다. 한국 고유의 병인 ‘화병’ 중에 38%는 ‘한국형 신체화 유형’에 해당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민성길 외, 1990). 프로이트는 전환장애(Conversion Disorder)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DSM-5에서 전환장애는 Conversion Disorder에서 Funtional Neurological Symptom Disorder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핵심 증상은 신경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운동·감각 증상이다. 마비와 실어증, 경련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적 갈등으로 표현한 전환장애와는 의미가 다르다. APA (2013) DSM-5 매뉴얼에서 신체 증상 장애(Somatic Symptom Disorder)는 신체 증상이 실제 존재하지만, 그에 따른 불안, 집착이 지나쳐 일상 기능을 저해하며 다양한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 최신 연구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히스테리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한다. Herman(1992)에 의하면 “히스테리는 여성의 말할 수 없는 외상의 언어였다”.

여성주의 목회상담에서는 히스테리를 병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저항과 트라우마, 말하지 못한 진실의 표현으로 바라본다. 여성주의 목회상담에서 트라우마 중심 돌봄 과정에서 내담자의 증상을 개인적인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외재화’ 시각으로 바라본다. 히스테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대적 배경과 문화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여성에게 붙여진 피병이라는 오명을 씻고 진단명도 PTSD로 바뀌게 되었다. 히스테리가 주로 발병하는 시기가 10세-35세임을 감안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 히스테리는 더 많이 연구되어야 할 분야임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웅섭 (2015). 자크 라캉의 세미나 읽기. 세창 미디어.
- 고혜경 외 (2023). 대담: 김민예숙, 로라 브라운과 여성주의 상담을 이야기하다.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8(1), 1-23.
- 권석만 (2013). 현대 이상 심리학. 학지사.
- 김민예숙, 강문순 (2004). 여성주의 상담자 교육 모델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3), 1-25.
- 김애령 (2018). 히스테리 언어의 의미: 프로이트의 히스테리 연구에 대한 여성 철학적 비판. 한국 여성 철학, 29, 31-58.
- 문장수, 심재호 (2014). 히스테리 증상의 원인으로서는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 - 프로이트의 도라 사례를 중심으로. 동서 철학연구, 72, 415-437.
- 민성길 외 (1990). 환병에 대한 일 역학적 연구. 신경 정신의학, 29(4), 867-874.
- 양석원 (2014). 라캉과 히스테리: 욕망에서 주이쌍스로. 비평과 이론, 19(1), 85-114
- 양석원 (2019). 에로스의 두 얼굴-프로이트와 라캉의 성과 사랑 이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 오오현, 안 석 (2011). 히스테리에 관한 치유 상담적 고찰. 신학과 실천, 28, 511-542.
- 이명호 (2004). 히스테리적 육체, 몸으로 글쓰기. 여성과 사회, 15, 10-45.
- 임옥희 외 (2003).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 정문영 (1998). 정신분석과 페미니즘: 라캉과 여성의 성욕. 인문학연구, 5(0), 71-92.
- 정희성 (2005). 히스테리의 비판적 재구성. 한국 기독교 신학논총. 41.
- 정희성 (2011). 여성과 목회상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태혜숙 (1998). 도라 사례/ 정신분석학/ 페미니즘. 여성 문제연구, 23(0), 123-135.
- Breuer, J., & Freud, S. (2003). 히스테리 연구(김미리혜 역). 열린 책들.
- Bollas, C. (2000). *Hysteria*. Routledge.
- Braun, C. von. (2003). 히스테리(엄양선 & 윤명숙 역). 여이연.
- Cixous, H. (1992). 도라의 초상(손흥기 역). 외국 문학, 제32호, 161-205.
- Cixous, H., & Clement, C. (2008). 새로 태어난 여성(이봉지 역). 나남.
- Freud, S. (1996).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김정일역). 열린 책들(원저: 1905 출판)
- Freud, S. (2017). 꼬마 한스와 도라(김재혁 역). 열린 책들(원저: 1905 출판).
- Freud, S. (2021). 토템과 터부(원당희 역). 미래 지식(원저:1913 출판)
- Grotstein, J. S. (2012). 흑암의 빛줄기(이재훈 역).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Herman, J. (1992). *Trauma and Recovery*, Basic Books.
- Lacan, J. (1977). *Écrits: A selection*(A. Sheridan, Trans.). Norton.
- Lacan, J. (2019). 에크리(홍준기외 역). 새물결출판사(원저: 1966 출판)
- Lohmann, H.-M. (2016). 프로이트 연구1(원당희 역). 세창출판사.
- Mitchell, S. A. & Margaret, B. (2002). 프로이트 이후(이재훈 역).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Nasio, J. D. (2011). 위기의 청소년(임말희 역). 눈출판 그룹.
- Rabaté, J.-M. (2005). Dora's Gift; Or, Lacan's Homage to Dora. *Psychoanalytic Inquiry*, 25(1),

84-93.

<http://doi.org/10.1080/07351692509349120>

Thurschwell, P. (2000). 프로이트 콤플렉스(강희
원 역). 앨피.

1차원고접수 : 2025. 08. 06.

심사통과접수 : 2025. 08. 25.

최종원고접수 : 2025. 09. 30.

The Dora Case in the History of Hysteria

Sung Ae Hong

Ewha Woman's University

Sigmund Freud's Dora case, along with Anna O's case,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study of hysteria. The early history of psychoanalysis began with the study of hysteria. More than 120 years after the Dora case was published in 1905, Freud's 'Oedipus Complex' theory has become a tradition of classical psychoanalysis, and modern psychoanalysis has penetrated culture, changed, and expanded its scope to various theories. This study attempts to expand the perspective on hysteria through literature research. First, Dora's symptoms and interpretation of Freud are reviewed through Freud's original text analysis, and Jacques Lacan's structuralist psychoanalytic theory is applied to analyze Dora's desire structure and subject formation process. Subsequently, by re-examining the Dora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modern feminist psychoanalytic theorists and feminist pastoral counseling, we intend to explore the gender and counseling implications of hysterical discourse.

Key words : Freud's Dora case, hysteria, Lacan, feminism, modern psychoanalysis, feminist pastoral counseling